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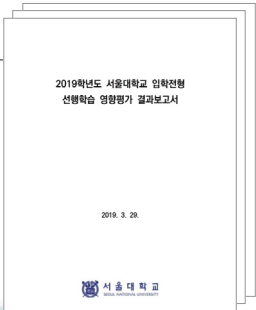
대입 캘린더

#3월 #대입_캘린더
#3월_전국연합학력평가

대학별 입학 설명회 일정 공지 또는 신청 개시

2월부터 주요 대학들의 입학 설명회 일정이 공지되거나 예약을 받기 시작한다. 4월에 입학 설명회가 가장 많이 몰려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약을 언제쯤 받는지 확인하고 알림을 설정해두자.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시간학교 모집 요강 발표 (3월 둘째 주 예정)	전국연합학력평가 경상도대학 모집 요강 발표 & 입학 설명회		
15	16	17	18	19	20	21
			학부모 총회			
			25	26	27	
				수학능력 시험 시행 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월 말 예정)		
29	30	31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발표				



학부모 총회 & 진학 상담

3월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전년 입시 결과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중복 합격 포함일 경우가 많으니 고려할 것. 선배들의 진학 결과로 자녀의 수시 원서 지원 범위를 가능해볼 수 있다. 진학 상담 신청은 필수. 일생에 한두 번 입시를 치를까 말까 하는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늘 입시 상황에 놓여 있는 교사가 입시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은 당연지사. 교사와 학생 간 이해가 부족하면 서로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기 힘들다. 내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발표

대학들은 3월 말까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별 고사의 기출문제, 출제 의도, 출제 근거, 제시문 출처 등이 담겨 있는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논술 합격생을 대거 배출한 학교의 노하우로 꼽힐 정도의 자료이니만큼,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지원할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살펴볼 것.

2020
MARCH

3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12일)

고3 재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전국 단위 모의고사다. 과탐II와 제2외국어/한문 등이 실시되지 않고 출제 범위가 수능에 비해 좁지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초로 목표 대학을 정하고 수시와 정시 원서 구성의 범위를 대강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정오표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할 학습 계획을 세우고, 공부 방법 점검의 기회로 활용할 것.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시간표

교시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비고
					문항	전체	
1	국어	08:40~10:00 (80분)	45	5지선다형	2,3	100	
2	수학 (택1)	10:30~12:10 (100분)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4	100	
	나형						
3	영어	13:10~14:20 (70분)	45	5지선다형 (듣기 17문항)	2,3	100	
4	한국사 (필수)	14:50~15:20 (30분)	20	5지선다형	2,3	50	
	탐구	1선택: 15:30~16:00 (30분) 2선택: 16:02~16:32 (30분)	20 (과목당)	5지선다형	2,3	50 (과목당)	선택 영역별 최대 2과목 선택

모의고사 끝나는 시간



사관학교·경찰대학 모집 요강 발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의 모집 요강은 3월에 발표된다. 이들 특수대학은 5~6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7월에 1차 시험을 시행해 다른 대학들에 비해 입시를 빨리 시작한다. 사관학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경찰대학은 작년 대체복무 폐지에 이어 남녀 통합 50명 선발, 체력검사 기준 강화, 입학 연령 제한 완화 등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할 것.

Teacher's Advice

'3월 모의고사 결과가 수능 결과다' '아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등 3월 시험에 대한 견해는 무척 다양하지만 여러 의견 속 공통점은 '나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원점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정오표, 전국 백분위, 영역별 세부 분석,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등 시험 성적표에 제공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98/94의 법칙'을 명심하자. N수생의 유입, 시험 범위의 증가로 과목별 백분위가 98은 되어야 수능 1등급, 94는 되어야 2등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3월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 결과에 너무 만족하거나 실망하면 새 학년, 새 학기에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흐려지기 마련. N수생이 들어오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어쩌면 정상이다. 완성되지 못한 공부를 끝까지 묵심 있게 마무리 짓고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피드백하면 성적은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3월은 기나긴 입시의 출발선! 지지 않는 꾸준함이 필요한 때다.

_대구 경신고 허준일 교사